



<h1>보도자료</h1>	보도일시	2017. 11. 20.(월) 12:00	 통계청
	배포일시	2017. 11. 20.(월) 09:00	
	담당부서	통계개발원 통계분석실	
	담당자	실 장: 김 경 용(042-366-7201) 사 무 관: 박 시 내(042-366-7202)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 출산, 아동보육, 청년층, 경력단절 -



통계청이 작성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 러 두 기

□ **(분석내용)** 통계개발원의 2017년 상반기 연구보고서(「아동·여성, 출산력 특성 분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분석목적)** 개인의 생애주기별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통계 활용도를 제고하고, 인구의 사회적 특성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습니다.

□ **(분석영역)** 생애주기별 4개 영역(출산, 아동보육, 청년층, 경력단절)으로 나누어, 출생 및 혼인코호트*별 주요 특성을 수록하였습니다.

* 코호트(Cohort)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집단을 의미함. 가령 출생 코호트란 동일한 시기에 출생한 동년배 집단, 혼인코호트란 동일한 시기에 결혼한 집단임.

□ **(분석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개인자료를 중심으로 가구 및 주택정보, 0-12세 아동의 부와 모의 특성(연령, 교육정도, 경제활동 상태)이 연계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20% 표본)을 대상으로 2015년에 실시된 조사로 조사내용은 인구규모 및 구성, 여성·출산력, 아동, 인구이동 등 52개 항목임

목 차

□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요약)	i
I. 출산과 아동돌봄	1
1. 출생아수	1
2. 첫 출산간격과 출산기간	3
3. 모의 취업상태별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8
II.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단절	10
1. 학업·일 유형	10
2.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학업·일 병행인구	12
3. 혼인코호트별 경력단절과 취업여부	14
4. 경력단절 현황 및 사유	16
 < 참고 > 주요 용어 풀이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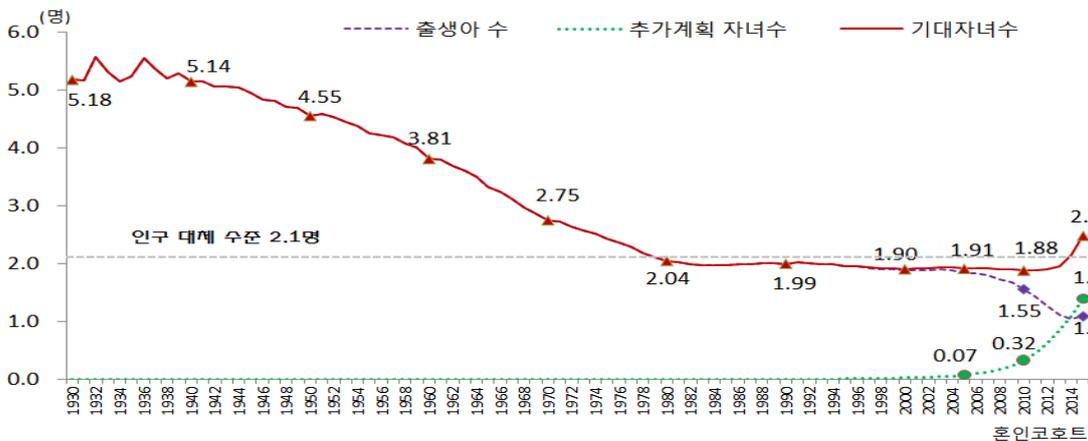
【출산: Fertility】

기대자녀수는 4.5명('50년~'54년 혼인)에서 1.9명('05년~'09년 혼인)으로 감소함

- 고학력화·결혼지연 등의 영향으로 출생아수는 4.5명('50년~'54년 혼인)에서 1.8명('05년~'09년 혼인)으로, 기대자녀수*는 4.5명('50년~'54년 혼인)에서 1.9명('05년~'09년 혼인)으로 감소함 * 기대자녀수: 출생아수 + 추가계획자녀수

< 혼인코호트별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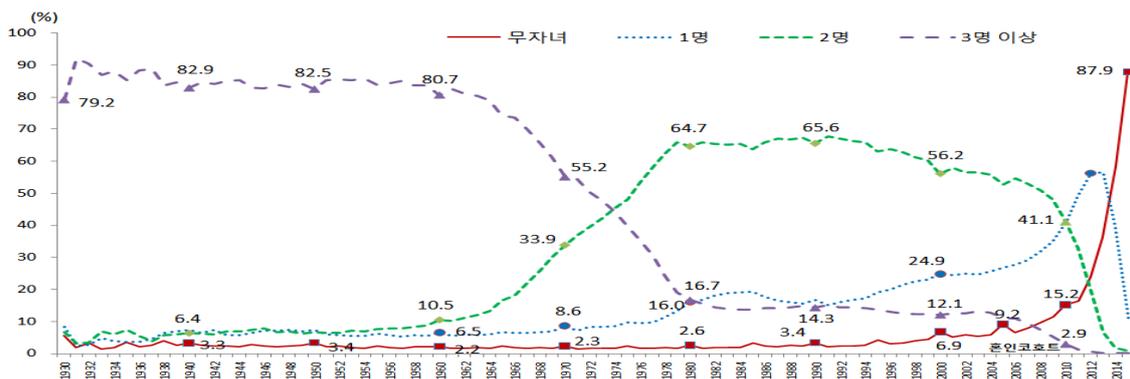


혼인 코호트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4	'05~'09	'10~'15
출생아수	4.49	4.14	3.68	3.09	2.64	2.26	2.0	1.99	2.0	1.93	1.88	1.77	1.32
기대 자녀수	4.49	4.14	3.68	3.09	2.64	2.26	2.0	1.99	2.0	1.94	1.92	1.91	2.07

무자녀 비중은 '80년 혼인코호트에서 2.6%였으나, '05년 혼인코호트에서 9.2%로 증가함

-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은 2.6%('80년 혼인)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90년 혼인 코호트는 3.4%, '00년은 6.9%, '05년은 9.2%로 증가함

< 혼인코호트별 출생아 수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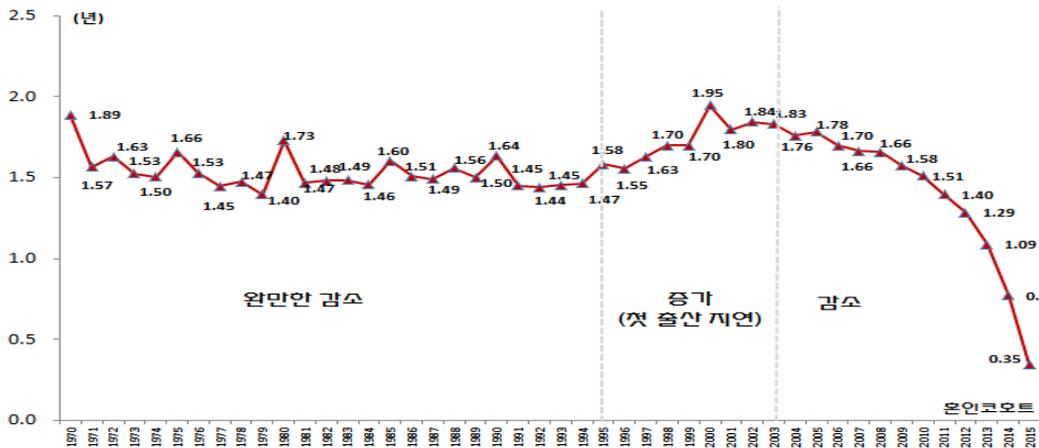


'90년대 후반에서 '00년대 전반 혼인코호트에서 첫 출산간격은 완만하게 증가함

- 혼인코호트별 첫 출산간격은 '70~'74년 혼인코호트부터 '90~'94년까지 완만한 감소 추세이나, 1990년대 후반 혼인코호트부터 첫 출산간격은 완만하게 증가함
 - 2000년대 중반 혼인코호트부터 만혼으로 인해 첫 출산간격은 감소함

< 혼인코호트별 첫 출산간격 >

(단위: 년)



혼인 코호트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4	'05~'09	'10~'15
첫 출산 간격	2.58	2.13	1.98	1.73	1.64	1.50	1.54	1.54	1.49	1.63	1.84	1.68	1.26

서울·경기·세종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은 결혼 후 첫 출산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강함

- 서울·경기·세종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높은 주거비용, 활발한 경제활동참가 등에 의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에 비해 출산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강함
 - 첫 출산간격이 긴 지역은 서울(1.75년), 경기(1.66년), 세종(1.63년) 순임

< 특·광역시도별 첫 출산간격(15-49세 기혼여성) >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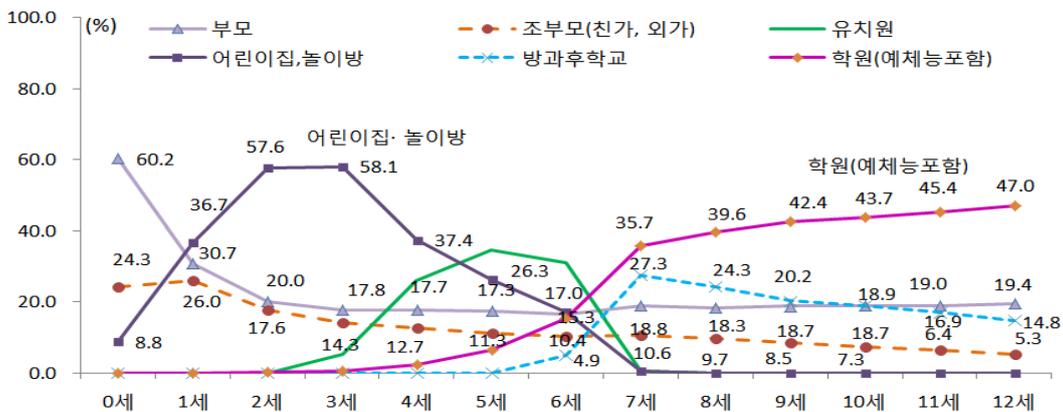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첫 출산 간격	1.75	1.61	1.57	1.59	1.49	1.57	1.52	1.63	1.6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첫 출산 간격	1.50	1.49	1.52	1.46	1.47	1.52	1.52	1.47	

취업모의 자녀는 비취업모 자녀에 비해 보육시설 및 학원 이용률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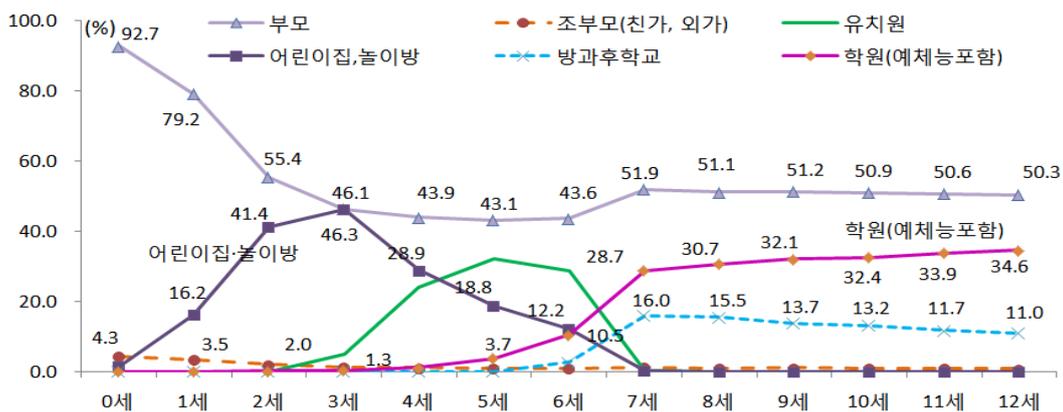
○ 영·유아기(0-5세) 돌봄서비스 유형을 살펴보면, 취업모의 자녀(51.5%)는 비취업모의 자녀(34.1%)보다 어린이집·놀이방 이용률이 17.4%p 높으며,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학원이용 비중 또한 높음

- ▶ 학원이용 비중(6세): 취업모(15.3%), 비취업모(10.5%)
- ▶ 학원이용 비중(12세): 취업모(47.0%), 비취업모(34.6%)

< 취업모 자녀의 연령별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



< 비취업모 자녀의 연령별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



< 영·유아기(0-5세) 모의 취업상태에 따른 돌봄형태별 이용률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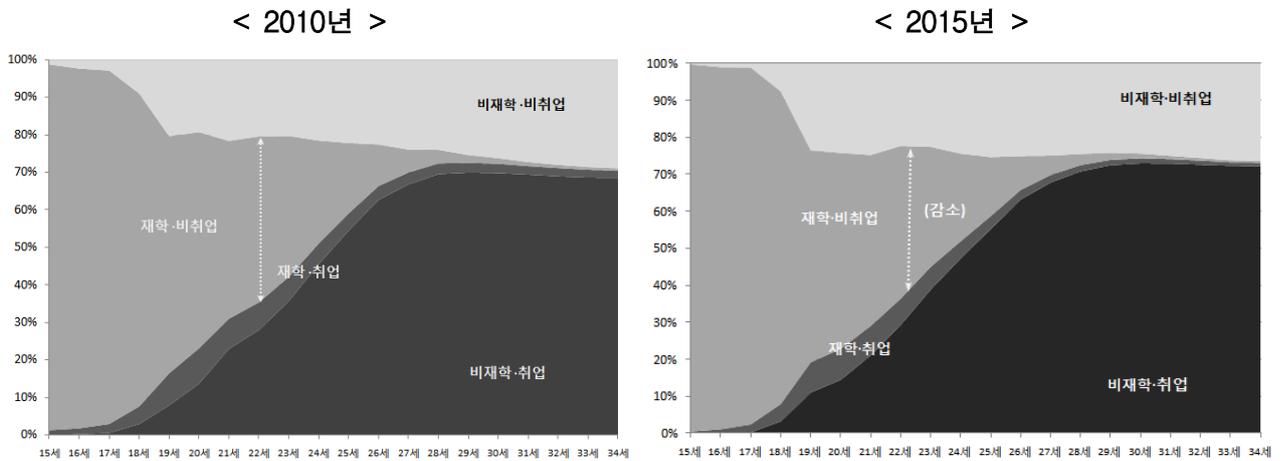
	취업모	비취업모
부모	31.4	76.0
조부모	21.4	2.7
어린이집·놀이방	51.5	34.1
가사도우미, 이웃사람	3.1	0.4

【청년층: School to Work】

대학 진학률 감소의 영향으로, 청년층 인구(15~34세) 중 재학·비취업 인구는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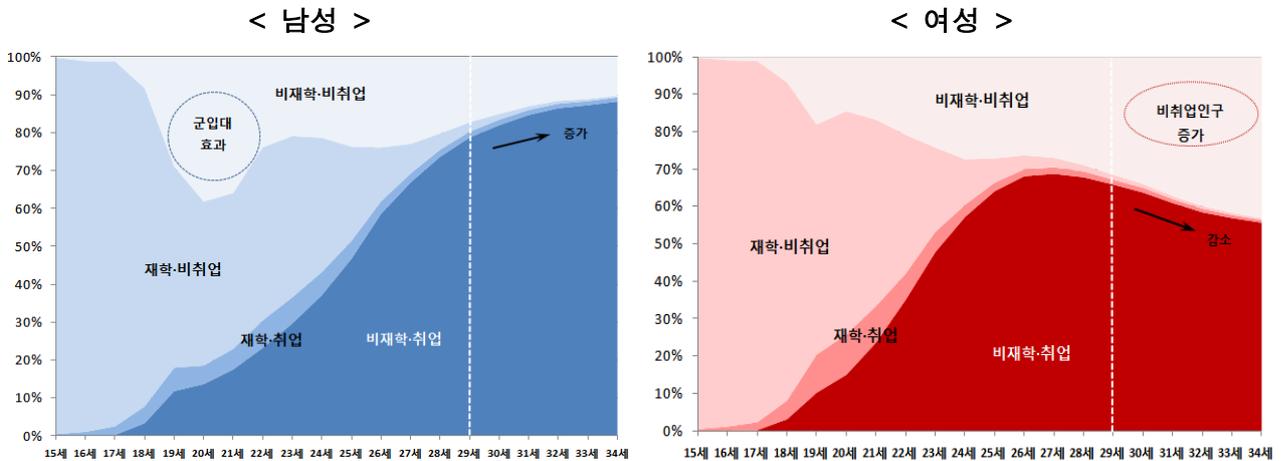
- 2015년의 학업·일 유형은 2010년에 비해 비재학·취업 및 비재학·비취업 인구는 각각 1.9%p, 0.6%p 증가하였으며, 재학·취업, 재학·비취업 인구는 각각 0.6%p, 1.8%p 감소함
- 이 같은 변화는 동 기간 중 청년층의 진학률 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청년층의 학업·일 4가지 유형의 연령별 분포 >



- 청년층의 학업·일 유형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은 군입대 효과, 여성은 결혼·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비취업 인구의 증가)이 나타남
- 29세 이후에 남성은 비재학·취업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감소함

< 청년층의 학업·일 4가지 유형의 성·연령별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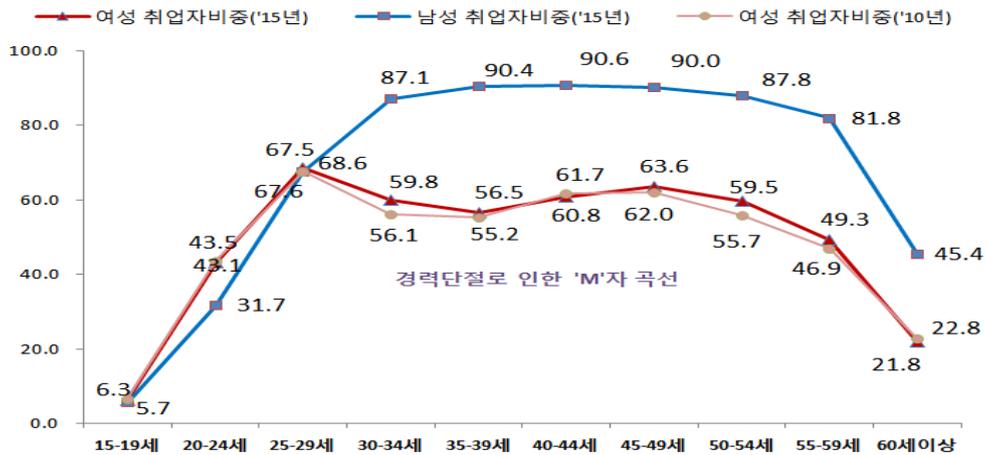
【경력단절: Career Interruption】

2010년~2015년 기간 중 여성의 'M'자 곡선의 함몰 시기는 지연되고, 깊이는 완화됨

- 2010년에는 30대 전반과 30대 후반의 취업자 비중이 유사하나, 2015년에는 30대 후반의 취업자 비중(56.5%)이 가장 낮아 여성의 경력단절 함몰의 시기가 지연되고, 함몰의 깊이도 완화될 것을 알 수 있음

<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비중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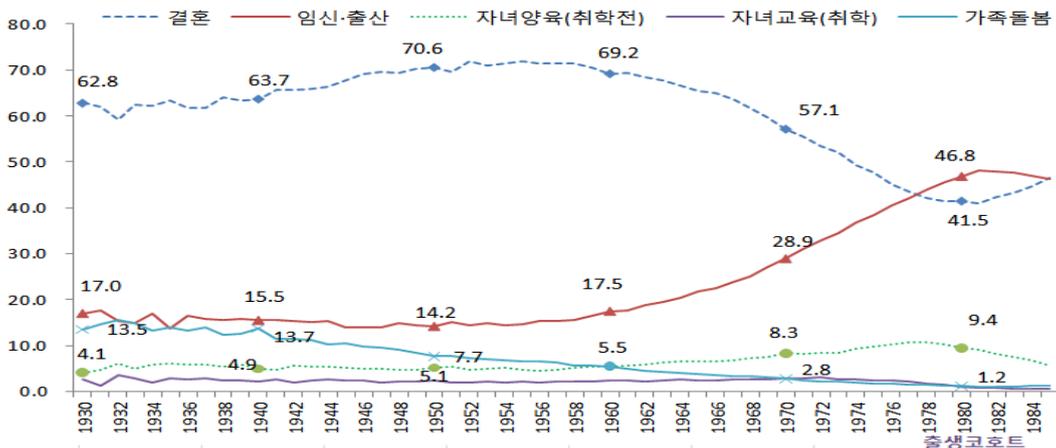


경력단절 사유로 '결혼'의 비중은 감소하고, '임신·출산'과 '자녀양육'의 비중이 높아짐

- 경력단절 사유로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60년생 이후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비중이 상승하여 '78년생 이후 경력단절의 주된 사유가 됨
- ▶ 결혼 : '50년생 70.6%→ '60년생 69.2%→ '70년생 57.1%→ '80년생 41.5%
- ▶ 임신·출산 : '50년생 14.2%→ '60년생 17.5%→ '70년생 28.9%→ '80년생 46.8%
- ▶ 자녀양육 : '50년생 5.1%→ '60년생 5.5%→ '70년생 8.3%→ '80년생 9.4%

< 기혼여성의 출생코호트별 경력단절 사유별 분포 >

(단위: %)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I. 출산과 아동돌봄

1. 출생아수

혼인코호트별 기대자녀수는 4.5명('50~'54년 혼인코호트)에서 1.9명('05~'09년 혼인코호트)으로 감소함

◆ 기대자녀수: 출생아수에 추가계획자녀수를 합한 것으로 향후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까지 포함된 개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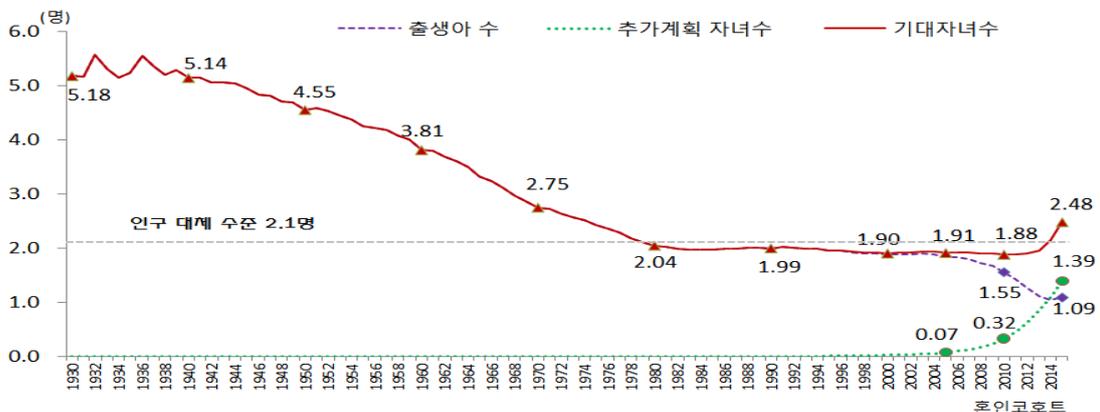
- (혼인코호트별 초혼연령) '50~'54년 혼인코호트의 초혼연령은 19.1세, '60~'64년은 21.0세, '70~'74년은 21.9세였으나, '00~'04년은 26.8세, '10~'15년은 29.4세로 크게 증가함
- (혼인코호트별 출생아수) '50~'54년 혼인코호트의 출생아수는 4.49명, '60~'64년은 3.68명, '70~'74년은 2.64명이었으나, 합계출산율이 1.3 이하인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들어 '00년대 전반 이후 '00~'04년은 1.88명, '05~'09년은 1.77명으로 감소함
- (혼인코호트별 기대자녀수) '95~'99년 혼인코호트의 기대자녀수는 1.94명, '00~'04년은 1.92명, '05~'09년은 1.91명, '10~'15년은 2.07명으로 2.1명* 이하임

* 인구대체 수준: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 수준으로 2.1명 수준임

< 기혼여성의 혼인코호트별 초혼연령, 출생아수(추가계획 자녀수), 기대자녀수 >

(단위: 세, 명)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4	'05~'09	'10~'15
초혼연령	19.1	20.1	21.0	21.9	21.9	22.4	22.9	24.1	24.7	25.6	26.8	28.1	29.4
출생아수 (추가계획 자녀수)	4.49	4.14	3.68	3.09	2.64	2.26	2.00	1.99	2.00	1.93	1.88	1.77	1.32
	-	-	-	-	-	-	-	-	-	(0.01)	(0.03)	(0.14)	(0.76)
기대자녀수	4.49	4.14	3.68	3.09	2.64	2.26	2.00	1.99	2.00	1.94	1.92	1.91	2.07



주: 1. 혼인코호트는 혼인년도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기혼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대자녀수 = 출생아 수 + 추가계획 자녀수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혼인코호트별 무자녀 비중은 2.6%('90~'94년 혼인코호트)에서
5.9%('00~'04년 혼인코호트)로 증가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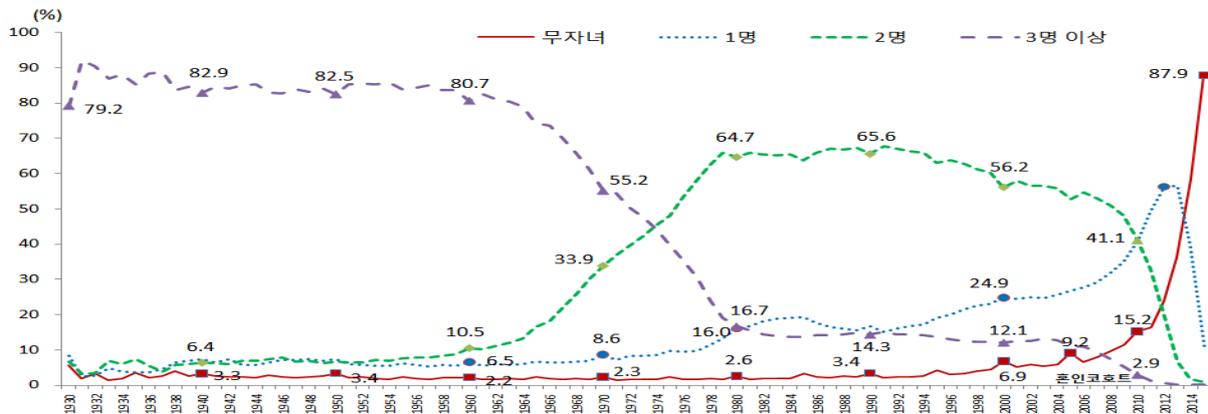
○ (혼인코호트별 출생아수 분포) '70~'74년 혼인코호트까지 3명 이상의 비중이 높았으나, '75~'79년 혼인코호트부터는 3명 이상의 비중은 감소하고, 2명의 비중이 증가하며, '95년 이후 혼인코호트부터 1명의 비중이 20% 이상으로 높아짐

- (무자녀 비중) '80~'84년 혼인코호트는 2.0%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0~'94년은 2.6%, '00~'04년은 5.9%임

< 기혼여성의 혼인코호트별 출생아수 분포 >

(단위: %)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4	'05~'09	'10~'15
0명	2.3	2.0	1.9	1.9	1.8	1.9	2.0	2.6	2.6	3.8	5.9	9.0	37.2
1명	6.0	5.7	6.0	6.7	8.3	10.8	17.7	17.1	16.3	21.1	24.9	30.1	43.7
2명	6.8	8.1	11.5	22.7	39.4	57.9	65.3	66.1	66.6	62.2	56.6	52.0	18.1
3명이상	84.9	84.2	80.7	68.7	50.6	29.4	15.0	14.2	14.5	12.8	12.6	8.9	0.9



주: 혼인코호트는 혼인년도 변수를 활용함.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 (혼인코호트별 기대자녀수 분포) 최근 혼인코호트의 기대자녀수 0명의 비중을 살펴보면, '00~'04년 혼인코호트는 5.0%, '05~'09년은 5.8%, '10~'15년은 8.2%로 혼인코호트별 출생아수 분포의 무자녀 비중보다는 적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기혼여성의 혼인코호트별 기대자녀수 분포 >

(단위: %)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4	'05~'09	'10~'15
0명	2.3	2.0	1.9	1.9	1.8	1.9	2.0	2.6	2.6	3.6	5.0	5.8	8.2
1명	6.0	5.7	6.0	6.7	8.3	10.8	17.7	17.1	16.3	21.0	24.3	26.0	33.6
2명	6.8	8.1	11.5	22.7	39.4	57.9	65.3	66.1	66.5	62.3	57.2	56.3	50.9
3명이상	84.9	84.2	80.7	68.7	50.6	29.4	15.0	14.2	14.6	13.0	13.5	11.8	7.4

2. 첫 출산간격과 출산기간

**혼인코호트별 첫 출산간격은
'90년대 후반에서 '00년대 전반 기간 중 완만하게 증가함**

◆ 첫 출산간격: 여성이 혼인하여 첫 출산이 발생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을 의미하며, 얼마나 빠르게 출산이 발생하는가(출산의 속도)를 나타냄

○ (혼인코호트별 첫 출산간격) 혼인코호트별 첫 출산간격은 '50~'54년 혼인코호트부터 '90~'94년까지 완만한 감소 추세임

- 이후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전반 혼인코호트에 첫 출산간격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이 시기의 낮은 출산율* 유지에 첫 출산간격 증가라는 속도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합계출산율(TFR) 추이: '97년(1.52명) → '00년(1.47명) → '03년(1.18명), 「인구동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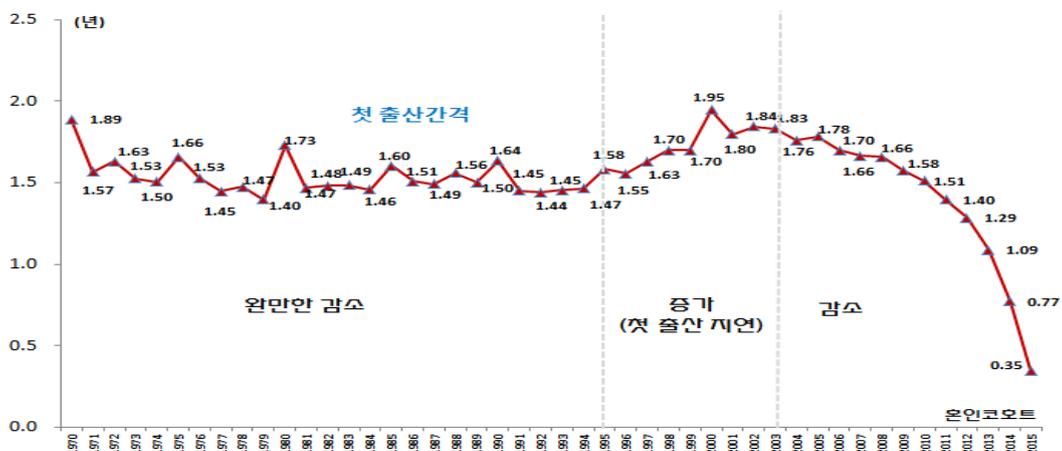
- 2000년대 중반 혼인코호트부터 만혼**으로 인해 첫 출산간격은 감소함

** 평균 혼인연령(여성): '05년(27.7세) → '07년(28.1세) → '10년(28.9세), 「인구동태조사」

< 기혼여성의 혼인코호트별 초혼연령 및 첫 출산간격 >

(단위: 세, 년)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4	'05~'09	'10~'15
초혼연령	19.1	20.1	21.0	21.9	21.9	22.4	22.9	24.1	24.7	25.6	26.8	28.1	29.4
첫 출산간격	2.58	2.13	1.98	1.73	1.64	1.5	1.54	1.54	1.49	1.63	1.84	1.68	1.26



주: 1. 분석대상은 출생아 수 1명 이상인 기혼여성이며, 출산이 결혼보다 이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함. 2. 첫 출산간격은 첫째 출산 시 연령 - 혼인 시 연령으로 산출함.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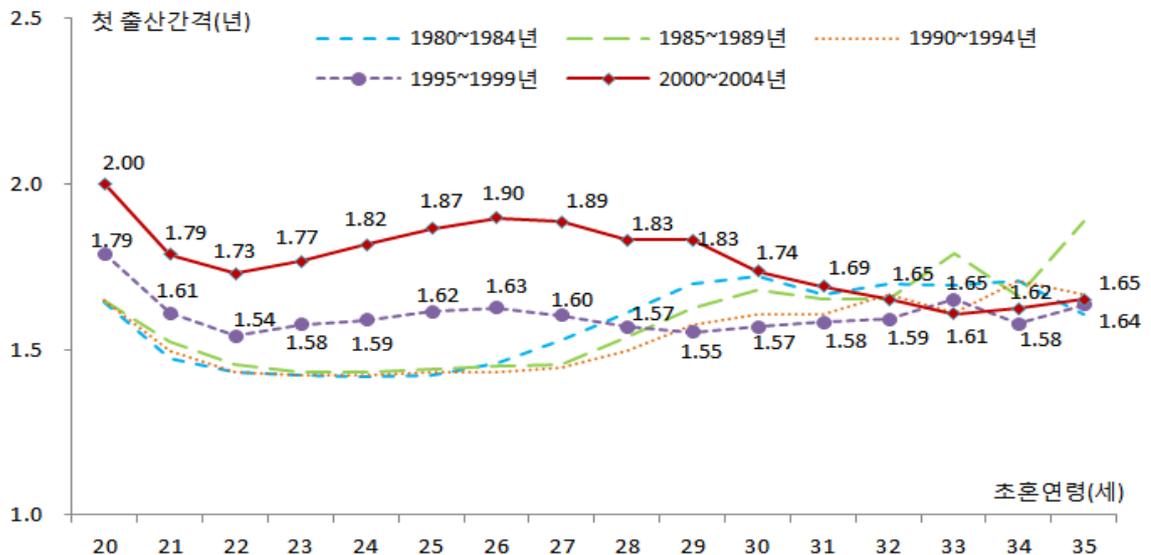
○ (혼인코호트별 초혼연령에 따른 첫 출산간격) 혼인코호트별 초혼연령에 따른 첫 출산간격을 살펴보면, 30세 이전까지 '95~'99년과 '00~'04년에 혼인한 여성들의 첫 출산간격은 다른 혼인코호트에 비해 늦음

- 한편 '00~'04년 혼인코호트는 30세 이전에는 첫 출산 시기가 이전 혼인코호트에 비해 늦지만, 혼인연령이 30세를 넘어가면서 첫 출산간격을 단축*시키는 경향이 발견됨

*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 만혼으로 인한 첫 출산간격의 단축 현상

< 기혼여성의 혼인코호트별 초혼연령에 따른 첫 출산간격 >

(단위: 년)



주: 1. 분석대상은 출생아 수 1명 이상인 기혼여성이며, 출산이 결혼보다 이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함. 2. 첫 출산간격은 첫째 출산 시 연령 - 혼인 시 연령으로 산출함.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서울, 경기, 세종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은 결혼 후 첫 출산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강함

○ (첫 출산간격의 지역별 분포) 첫 출산간격이 긴 지역은 서울(1.75년), 경기도(1.66년), 세종특별자치시(1.63년) 순으로 나타남

- 서울, 경기, 세종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높은 주거비용, 활발한 경제활동참가 등에 의해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강함
- 첫 출산간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세종(1.26년), 서울(1.18년), 30대는 서울(1.82년), 경기도(1.72년), 인천(1.69년), 40대는 서울(1.74년), 세종(1.67년), 경기도(1.65년) 지역의 첫 출산간격이 길게 나타남

< 특·광역시도별 첫 출산간격(15-49세 기혼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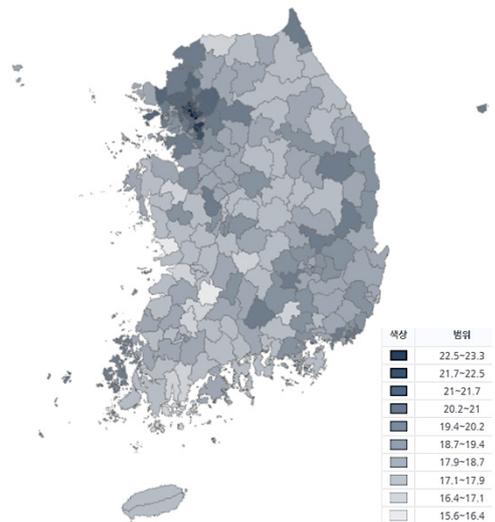
(단위: 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첫 출산 간격	1.75	1.61	1.57	1.59	1.49	1.57	1.52	1.63	1.6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첫 출산 간격	1.50	1.49	1.52	1.46	1.47	1.52	1.52	1.47	

주: 첫 출산간격은 첫째 출산 시 연령 - 혼인 시 연령으로 산출함.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 (첫 출산간격의 시군구별 차이) 첫 출산간격 상위 시군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1.94년), 서초구(1.90년), 강남구(1.87년) 등이며, 하위 시군구는 충남 서천군(1.30년), 전북 임실군(1.35년) 등임

< 첫 출산간격의 시군구별 분포(15-49세 기혼여성) >
 (단위: 개월)



< 첫 출산간격 상위 및 하위 시군구(15-49세 기혼여성) >
 (단위: 년)

	상위 시군구		하위 시군구	
1	서울 용산구	1.94	충남 서천군	1.30
2	서울 서초구	1.90	전북 임실군	1.35
3	서울 강남구	1.87	전남 담양군	1.38
4	서울 중구	1.85	강원 철원군	1.39
5	서울 종로구	1.83	충남 예산군	1.40
6	경기 용인 수지구	1.83	전북 순창군	1.41
7	서울 마포구	1.81	전남 완도군	1.41
8	경기 성남 분당구	1.81	전남 강진군	1.41
9	서울 성동구	1.80	전남 장흥군	1.41
10	경기 용인 기흥구	1.80	전북 김제시	1.42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혼인코호트별 출산기간은 10년 이상('50~'54년 혼인코호트)에서 4년 내외('75~'04년 혼인코호트)로 단축됨

◆ 출산기간: 첫째 출산에서 막내 출산까지의 소요기간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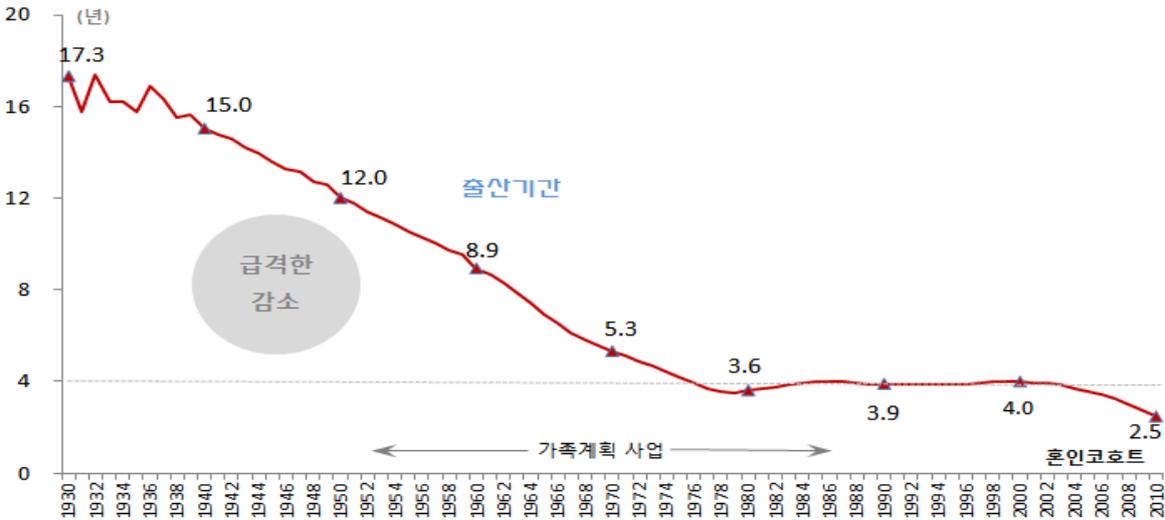
○ (혼인코호트별 출산기간) '50~'54년 혼인코호트의 출산기간은 11.4년, '60~'64년은 8.4년, '80~'84년은 3.8년, '00~'04년은 3.9년으로 최근 혼인코호트일수록 출산기간은 단축되는 추세임

- '40년에 혼인한 여성의 출산기간은 15.0년, '50년은 12.0년으로 10년 이상이었으나, '60년 혼인코호트는 8.9년, '70년 혼인코호트는 5.3년, '80년 혼인코호트는 3.6년으로 급격하게 감소함
- 한편 가족계획 정책이 사라지는 '80년대 후반 혼인코호트 이후 출산기간이 소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는데, '90년의 출산기간은 3.9년, '00년은 4.0년으로 '80년(3.6년)에 비해서 0.3년 내외로 증가함

< 기혼여성의 혼인코호트별 출산기간 >

(단위: 년)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00~'04	'05~'09	'10~'15
출산기간	11.4	10.0	8.3	6.2	4.9	3.8	3.8	4.0	3.9	3.9	3.9	3.2	2.2



주: 1. 분석대상은 출생아 수 2명 이상인 기혼여성임. 2. 출산기간은 막내 자녀 출산 시 연령 - 첫째 출산 시 연령으로 산출함.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서울, 부산, 울산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출산기간이 짧음

- (출산기간의 지역별 분포) 출산기간이 긴 지역은 제주(4.23년), 전남(3.97년), 강원(3.85년) 순이며, 출산기간이 짧은 지역은 울산(3.53년), 부산(3.62년), 서울(3.66년) 순임
 - 출산기간이 짧다는 것은 출산수준이 낮거나, 단기간에 출산을 완결시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함
- (출산기간의 연령대별 분포) 20대는 세종(2.3년), 서울(2.33년), 30대는 서울(3.33년), 울산(3.31년), 40대는 서울(3.81년)과 부산(3.75년), 울산(3.67년)의 출산기간이 짧음

< 특·광역시도별 출산기간(15-49세 기혼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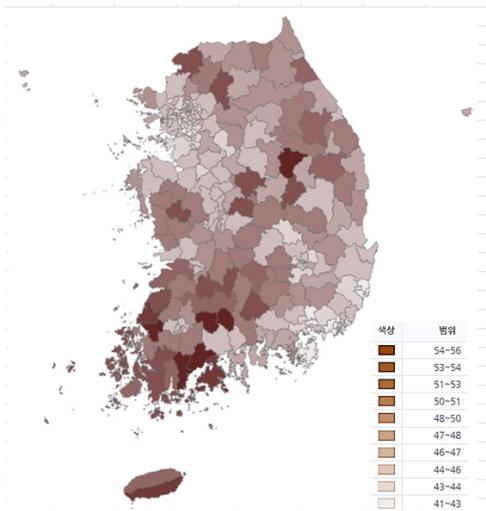
(단위: 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출산기간	3.66	3.62	3.72	3.72	3.76	3.74	3.53	3.67	3.6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출산기간	3.85	3.79	3.75	3.79	3.97	3.75	3.66	4.23	

주: 출산기간은 막내 자녀 출산 시 연령 - 첫째 출산 시 연령으로 산출함.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 모든 연령대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첫 출산간격은 길고, 출산기간이 짧은 편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첫 출산을 지연시키며, 평균 출생아수는 적고, 단기간에 출산을 완결시키는 경향성이 발견됨
- (출산기간의 시군구별 분포) 출산기간 상위 시군구는 전남 곡성군(4.64년), 전남 함평군(4.63년) 순이며, 하위 시군구는 경남 창원 성산구(3.43년), 경남 거제시(3.47년) 순임

< 출산기간의 시군구별 분포(15-49세 기혼여성) > (단위: 개월)



< 출산기간 상위 및 하위 시군구(15-49세 기혼여성) > (단위: 년)

	상위 시군구		하위 시군구	
1	전남 곡성군	4.64	경남 창원 성산구	3.43
2	전남 함평군	4.63	경남 거제시	3.47
3	전남 보성군	4.58	울산 동구	3.49
4	전남 구례군	4.53	울산 북구	3.50
5	전남 장흥군	4.52	부산 강서구	3.51
6	충북 단양군	4.51	울산 남구	3.52
7	제주 서귀포시	4.48	경기 수원 영통구	3.54
8	전남 영광군	4.47	경기 수원 장안구	3.55
9	전남 고흥군	4.45	서울 영등포구	3.55
10	전남 신안군	4.38	경기 군포시	3.55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3. 모의 취업상태별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자녀의 연령이 상승할수록 모의 취업자 비중 또한 상승하며,
취업모 자녀는 비취업모의 자녀에 비해 보육시설 및 학원 이용률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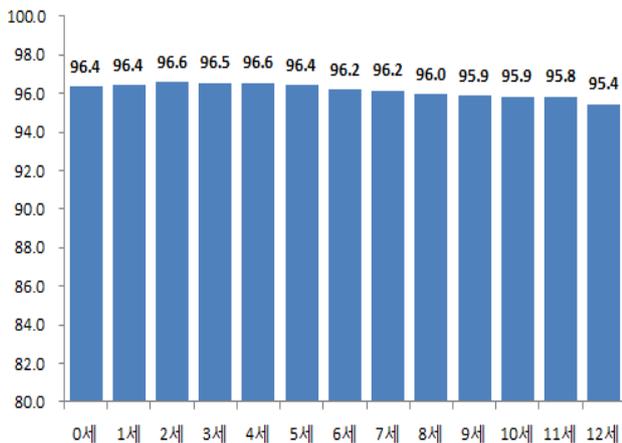
○ (아동 연령별 부모의 취업상태) 아동의 연령별 부모의 취업자 비중은 95% 내외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모의 취업자 비중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승함

- 자녀의 연령이 0세인 경우 모의 취업률은 27.0%에 불과하나, 1세가 되면 31.9%, 2세는 36.6%, 3세는 39.4%, 4세는 41.7%, 5세는 43.4%, 6세는 44.2%로 자녀의 연령이 상승할수록 모의 취업자 비중 또한 상승함
- 한편 7세 자녀를 둔 모의 취업자 비중은 44.6%로 가장 낮은 상승폭(6세 대비 0.4%p)을 보이는데, 이 시기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임
- 7세 이후 모의 취업자 비중은 다시 상승하는데, 10세는 49.9%, 11세는 51.7%, 12세는 53.0%로 자녀 연령이 11세가 넘어가면 모의 절반 수준이 취업상태임

< 아동 연령별 부모의 취업자 비중(0-12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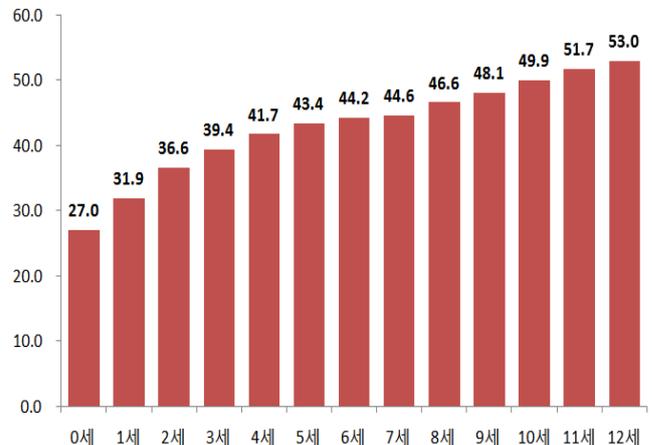
< 아동의 부 >

(단위: %)



< 아동의 모 >

(단위: %)



주: 1. 0-12세 아동 정보를 기준으로 아동의 부와 모의 취업상태 항목을 연계하여 분석에 활용함. 2. 부의 자료 연계율은 86.6%이며, 모의 자료 연계율은 90.5%임(동일가구 내에 부 또는 모와 아동이 같이 거주하고, 부 또는 모가 가구주 또는 배우자인 경우만 연계함)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영·유아기(0-5세) 돌봄서비스 유형을 살펴보면, 취업모(51.5%)는 비취업모(34.1%)보다 어린이집·놀이방 이용률이 17.4%p 높으며, 부모가 돌보는 비중은 비취업모(76.0%)가 취업모(31.4%)보다 44.6%p 높음

- (영아기(0-2세)) 비취업모의 경우 부모가 돌보는 비중이 현저히 높은 반면, 취업모는 어린이집·놀이방 및 조부모 돌봄의 의존도가 높음

- ▶ 0세 : 부모→ 취업모(60.2%), 비취업모(92.7%), 어린이집·놀이방→ 취업모(8.8%), 비취업모(1.6%)
- ▶ 1세 : 부모→ 취업모(30.7%), 비취업모(79.2%), 어린이집·놀이방→ 취업모(36.7%), 비취업모(16.2%)
- ▶ 2세 : 부모→ 취업모(20.0%), 비취업모(55.4%), 어린이집·놀이방→ 취업모(57.6%), 비취업모(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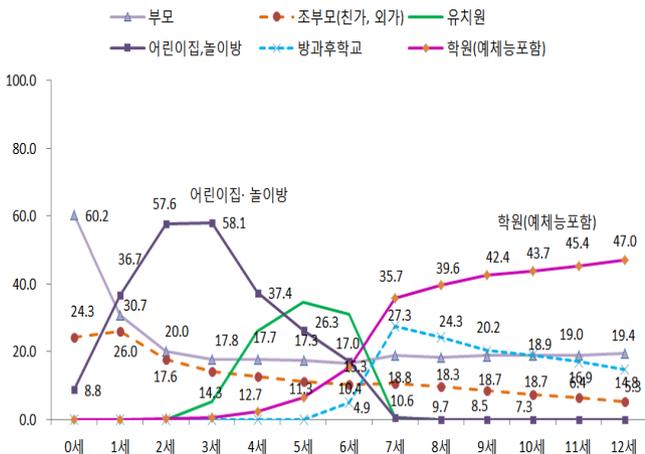
- (유아기(3-5세)) 부모와 조부모가 돌보는 비중은 감소하고, 어린이집·놀이방, 유치원 등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데, 어린이집·놀이방 이용률은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높은 반면 유치원 이용률은 두 집단 간 유사함

- (초등기(6-12세)) 초등학교 입학 이후 취업모의 자녀는 비취업모의 자녀보다 학원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부모 자신이 돌보는 비중은 낮음

- ▶ 6세 : 부모→ 취업모(16.5%), 비취업모(43.6%), 학원→ 취업모(15.3%), 비취업모(10.5%)
- ▶ 12세 : 부모→ 취업모(19.4%), 비취업모(50.3%), 학원→ 취업모(47.0%), 비취업모(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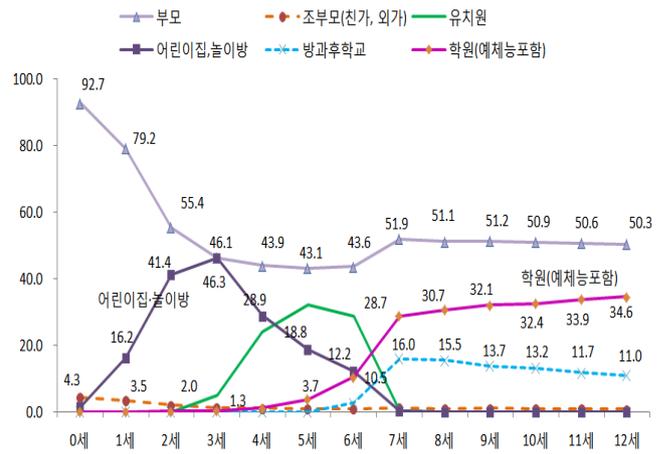
< 자녀의 돌봄서비스 이용현황(취업모) >

(단위: %)



< 자녀의 돌봄서비스 이용현황(비취업모) >

(단위: %)



< 영·유아기(0-5세) 모의 취업상태에 따른 돌봄형태별 이용률 >

(단위: %)

	취업모	비취업모
부모	31.4	76.0
조부모	21.4	2.7
어린이집·놀이방	51.5	34.1
가사도우미, 이웃사람	3.1	0.4

주: 1. 낮 시간의 주된 양육형태를 조사함. 2. 주된 것 2개까지 복수응답 처리되어 합이 100%를 초과함.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II.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단절

1. 학업·일 유형

2010년에서 2015년 기간 청년층 인구(15~34세) 중
비재학·비취업 인구는 0.6%p 증가한 반면, 재학·비취업 인구는 1.8%p 감소함

◆ 청년층의 학업·일 4가지 유형

- ▶ 비재학·취업 ⇒ 정규교육 재학 중이 아니면서, 취업 중인 경우
- ▶ 재학·취업 ⇒ 정규교육 재학 중이면서, 취업 중인 경우
- ▶ 재학·비취업 ⇒ 정규교육 재학 중이면서, 취업 중이 아닌 경우
- ▶ 비재학·비취업 ⇒ 정규교육 재학 중이 아니면서, 취업 중이 아닌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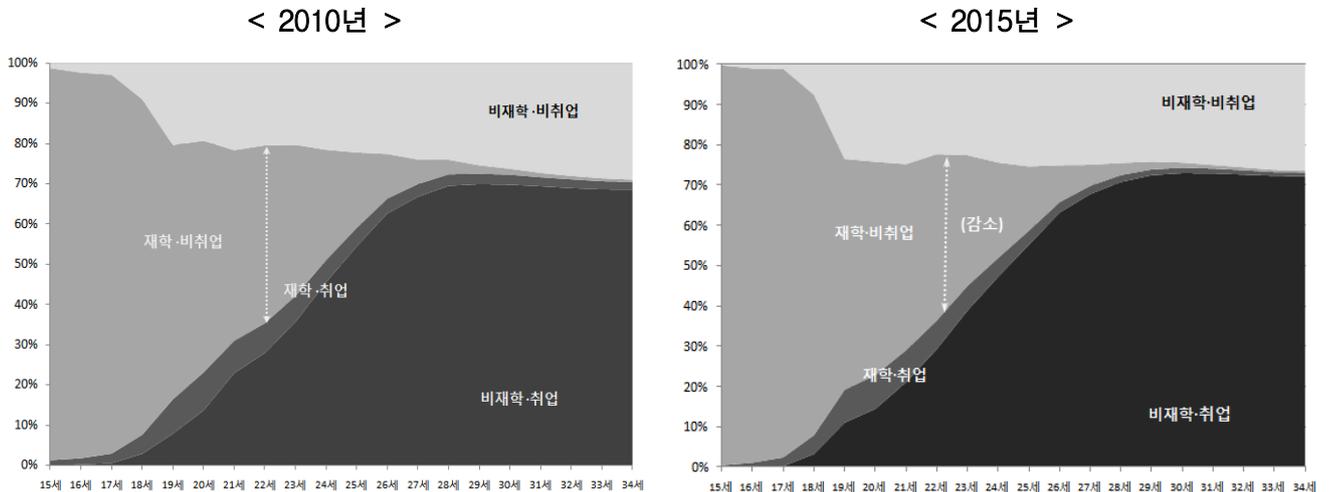
○ (학업·일 유형 추이) 2015년의 학업·일 유형은 2010년에 비해 비재학·취업 및 비재학·비취업 인구는 각각 1.9%p, 0.6%p 증가하였으며, 재학·취업, 재학·비취업 인구는 각각 0.6%p, 1.8%p 감소함

- 동 기간 중 대학진학률* 감소로 재학·취업과 재학·비취업 인구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대학진학률(2년제 포함): '10년(79.0%) → '12년(71.3%) → '15년(70.8%), 「교육통계연보」

< 청년층의 학업·일 4가지 유형의 연령별 분포(2010년, 2015년) >

(단위: %)



	2010년				2015년			
	비재학·취업	재학·취업	재학·비취업	비재학·비취업	비재학·취업	재학·취업	재학·비취업	비재학·비취업
15~19세	2.1	3.5	87.6	6.7	2.8	3.2	87.6	6.4
20~24세	30.2	7.2	41.9	20.7	31.0	6.8	38.6	23.6
25~29세	65.3	3.3	7.7	23.7	65.8	2.3	7.1	24.8
30~34세	69.1	2.2	1.0	27.8	72.6	1.1	0.8	25.6
계	43.3	3.8	32.9	19.9	45.2	3.2	31.1	20.5

주: 재학여부(재학=1, 비재학=0)와 취업상태(취업=1, 비취업=2)를 활용하여 4가지 조합을 생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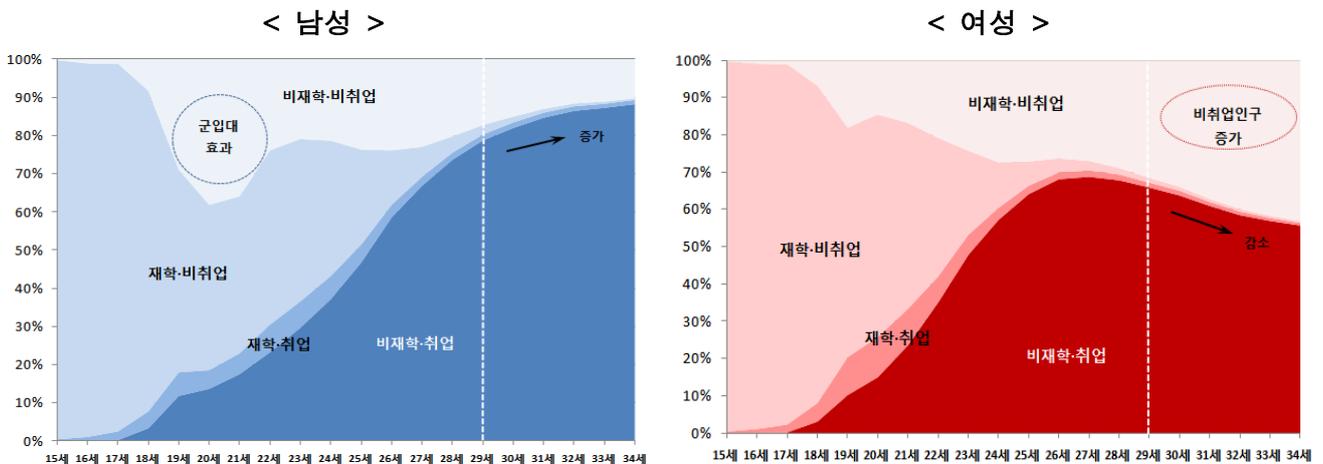
자료: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청년층의 학업·일 유형에서 남성은 군입대 효과,
여성은 출산·자녀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남

- 15~19세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시기로 학업에 전념하는 '재학·비취업'의 비중 (남성 86.9%, 여성 88.4%)이 압도적으로 높음
- 20~24세는 대학교 진학 및 남성은 군입대를 하는 시기로 '비재학·비취업' 비중 (남성 26.8%, 여성 20.8%)이 크게 증가함
- 25~34세는 대학졸업 및 노동시장 진입, 결혼 및 출산의 생애과정을 겪는 시기로 남성은 '비재학·취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경력단절 현상으로 '비재학·취업'의 비중이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비재학·비취업'의 비중이 증가함

< 청년층의 학업·일 4가지 유형의 연령별 분포(2015년) >

(단위: %)



	남성				여성			
	비재학·취업	재학·취업	재학·비취업	비재학·비취업	비재학·취업	재학·취업	재학·비취업	비재학·비취업
15-19세	2.9	2.8	86.9	7.5	2.7	3.7	88.4	5.3
20-24세	25.4	6.2	41.5	26.8	35.8	7.2	36.1	20.8
25-29세	64.7	2.8	10.9	21.6	66.9	1.7	3.2	28.2
30-34세	85.9	1.2	0.8	12.0	58.9	0.9	0.7	39.5
계	48.0	3.0	32.5	16.5	42.5	3.3	29.8	24.5

주: 재학여부(재학=1, 비재학=0)와 취업상태(취업=1, 비취업=2)를 활용하여 4가지 조합을 생성함.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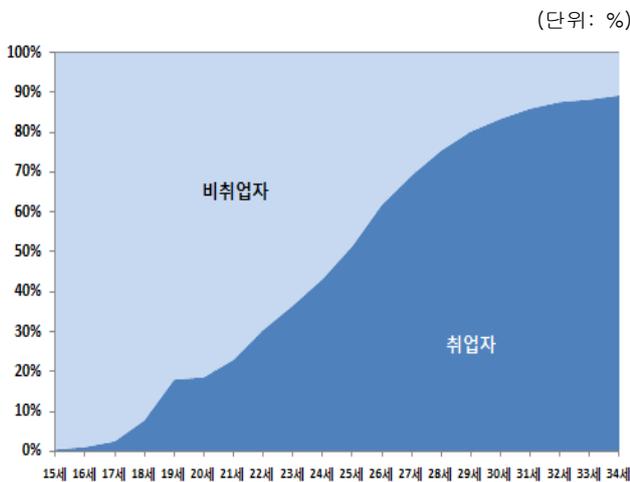
2.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학업·일 병행인구

여성 청년층(15~34세)의 취업자 비중은
20대 후반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나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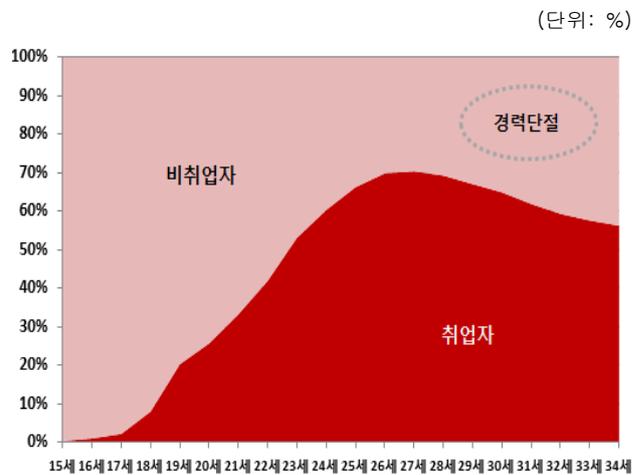
○ (청년층의 성별 노동시장 진입) 남성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0대 중반에는 90% 수준에 이르는 반면, 여성 청년층의 취업자 비중은 20대 후반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나,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함

- 20~24세의 취업자 비중은 남성은 31.7%, 여성은 43.1%로 여성이 11.4%p 더 높음
- 25~29세의 취업자 비중은 남성은 67.5%, 여성은 68.6%로 유사한 수준임
- 30~34세의 취업자 비중은 남성은 87.1%로 20대 후반(67.5%)에 비해 19.6%p 상승하는 반면, 여성은 59.8%로 20대 후반(68.6%)에 비해 8.8%p 감소함

< 청년층 남성의 연령별 취업자 비중 >



< 청년층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비중 >



	전체		남성		여성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15-19세	6.0	94.0	5.7	94.3	6.3	93.7
20-24세	37.8	62.2	31.7	68.3	43.1	56.9
25-29세	68.0	32.0	67.5	32.5	68.6	31.4
30-34세	73.6	26.4	87.1	12.9	59.8	40.2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청년층(15~34세) 중 학업·일 병행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4.0%), 대전(3.7%), 세종(3.5%)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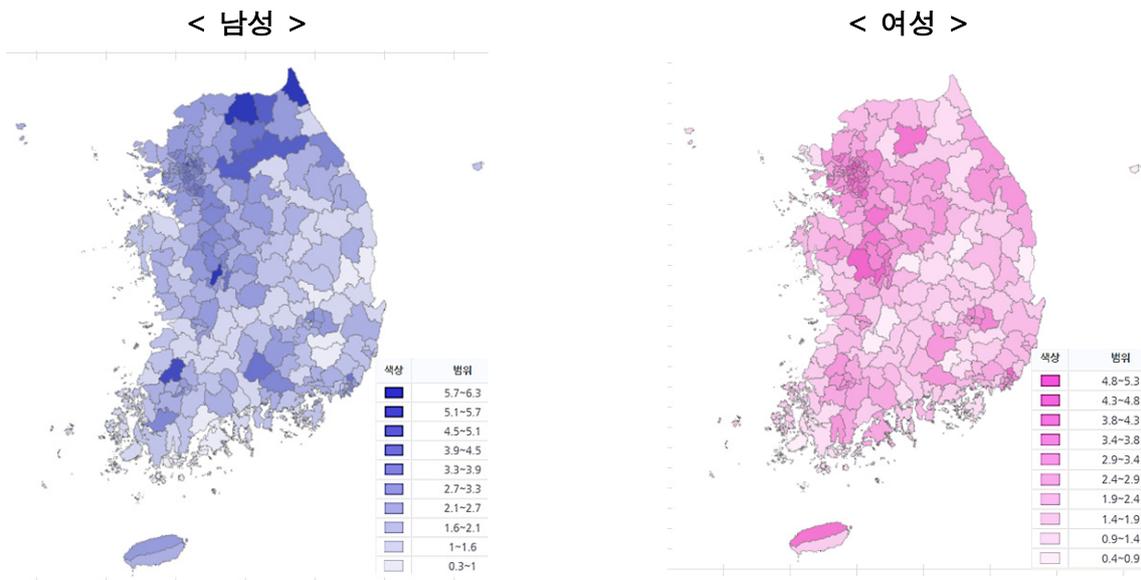
◆ 학업·일 병행인구: 정규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취업 중인 청년층(15~34세) 인구

○ (청년층의 학업·일 병행인구 분포) 청년층(15-34세) 중 학업·일 병행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4.0%), 대전(3.7%), 세종(3.5%) 순임

- 시군구별로는 서울 서대문구(5.2%), 대전 유성구(5.1%), 서울 동대문구(4.8%), 서울 성북구(4.7%) 등에서 학업·일 병행인구의 비중이 높음

< 청년층의 학업·일 병행인구 비중 분포 >

(단위: %)



< 청년층의 학업·일 병행인구 비중(특·광역시도별) >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학업·일 병행인구	4.0	3.0	3.0	3.0	2.9	3.7	2.2	3.5	3.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학업·일 병행인구	3.1	3.0	2.7	2.4	1.9	1.9	2.3	3.2	3.2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3. 혼인코호트별 경력단절과 취업여부

2010년에서 2015년 기간 중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비중을 보면,
'M'자 곡선의 함몰 시기는 지연되고, 깊이는 완화됨

◆ **경력단절** : 인구주택총조사(2015년)에서는 20세 이상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전 일자리 여부와 결혼 전 일자리가 단절된 경우 그 주된 사유를 조사하였음. 경력단절의 주된 사유는 결혼, 임신·출산, 자녀양육(미취학), 자녀교육(취학), 가족돌봄(부모 등) 등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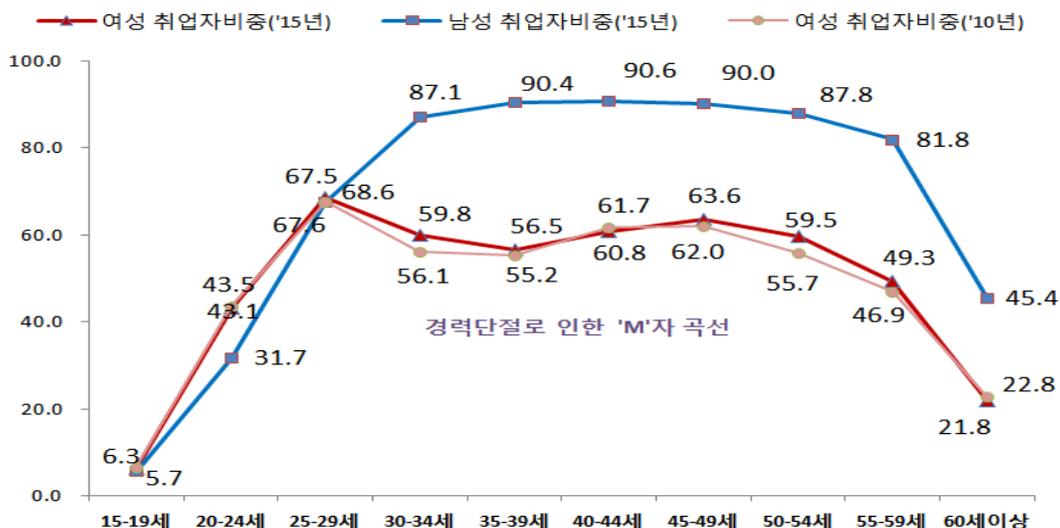
○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M'자 곡선) 남성의 취업자 비중은 노동시장 진입 후 50대 전반까지 90% 내외 수준을 유지하나, 여성의 취업자 비중에는 여전히 'M'자 곡선이 나타남

- (여성 20대) 노동시장 진입 시기에는 여성의 취업자 비중이 남성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여, 20대 전반 여성의 취업자 비중은 43.1%, 20대 후반은 68.6%로 남성보다 높음
- (여성 30, 40대) 30대 전반은 59.8%, 30대 후반은 56.5%로 여성 취업자의 비중은 20대 후반에 정점을 찍고, 30대에 이르러 하락함. 이후 40대에 여성의 취업자 비중은 다시 상승하여, 40대 전반은 60.8%, 40대 후반은 63.6%에 이름

○ (여성의 'M'자 곡선 함몰지점의 변화) '10년에는 30대 전반(56.1%)과 30대 후반(55.2%)의 취업자 비중이 유사하나, '15년에는 30대 후반의 취업자 비중(56.5%)이 가장 낮아 여성의 경력단절 함몰의 시기는 지연되고, 함몰의 깊이도 완화됨

<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취업자 비중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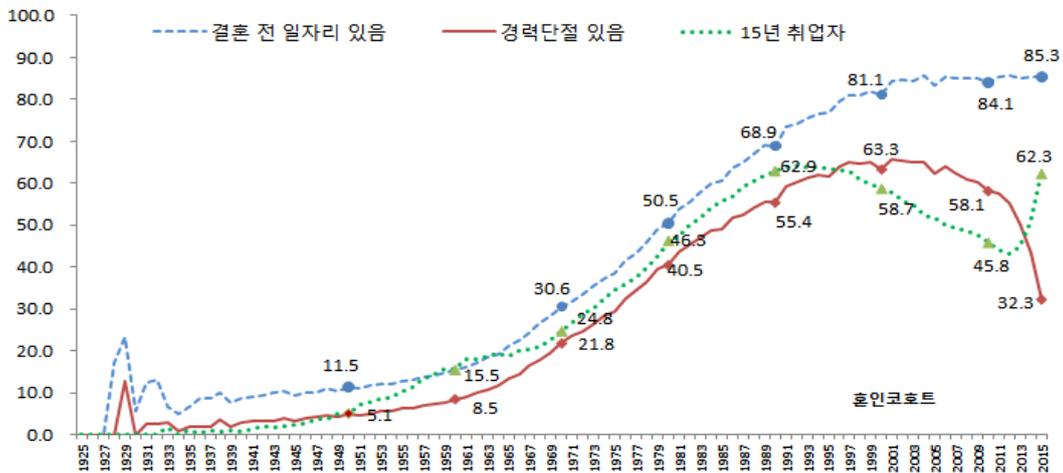
자료: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2000년대 중반 혼인코호트 이후 경력단절 비중은 급격히 감소

- (혼인코호트별 경력단절 비중) 결혼 전 일자리에 대한 경력단절 비중을 살펴보면, 경력단절이 발생한 비중은 '70년 혼인코호트 21.8%, '80년은 40.5%, '90년은 55.4%, '00년은 63.3%로 상승추세이나,
 - 혼인기간이 짧은 2000년대 중반 혼인코호트 이후 경력단절 비중은 급격히 감소함
- (혼인코호트별 취업자 비중) 혼인코호트별 '15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90년대 중반부터 취업자 비중은 하락하여 '00년 혼인코호트는 58.7%, '10년은 45.8%이나, 최근 혼인코호트는 경력단절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 취업자 비중이 상승함
- (기혼여성의 경력단절과 취업여부 유형별 특성) '경단○취업○'의 평균 연령(47.1세)이 가장 낮으며, '경단○취업×'의 수도권 거주 비중(54.0%) 및 대학이상 비중(43.6%)이 가장 높음

< 혼인코호트별 결혼 전 일자리 있음, 경력단절 있음, '15년 취업자 비중 >

(단위: %)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 기혼여성의 경력단절과 취업여부 유형별 특성 >

(단위: 명, 세, %)

	출생아수	초혼연령	평균연령	자가	수도권 인구	대학이상
경단○취업○	1.99	24.8	47.1	63.8	49.9	37.9
경단○취업×	2.02	25.5	47.9	65.3	54.0	43.6
경단×취업○	2.22	24.7	49.9	65.2	44.3	38.2
경단×취업×	2.89	22.7	64.1	69.9	44.2	14.3

주: 경력단절은 결혼 전 일자리가 있었던 경우 그 일자의 단절여부이며, 취업은 2015년 기준의 취업여부임.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4. 경력단절 현황 및 사유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
 '결혼'의 비중은 감소하고,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의 비중이 증가함

○ (기혼여성의 출생코호트별 경력단절 사유별 분포) 경력단절 사유로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60년생부터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비중이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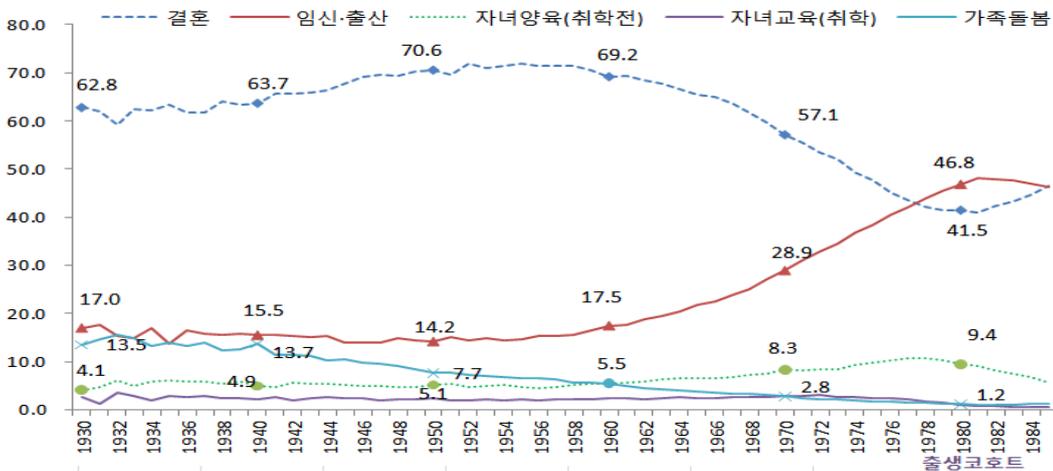
- ▶ 결혼 : '50년생 70.6% → '60년생 69.2% → '70년생 57.1% → '80년생 41.5%
- ▶ 임신·출산 : '50년생 14.2% → '60년생 17.5% → '70년생 28.9% → '80년생 46.8%
- ▶ 자녀양육 : '50년생 5.1% → '60년생 5.5% → '70년생 8.3% → '80년생 9.4%

- 경력단절 사유 중 '자녀양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년생 4.1%에서 '80년생은 9.4%로 5.3%p 증가한 반면, '가족돌봄(부모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년생 13.5%에서 '80년생은 1.2%로 12.3%p 감소함

○ (기혼여성의 연령대별 경력단절 사유별 분포) 경력단절 사유로 20대는 '임신·출산(42.9%)의 비중이 높고, 30대는 '임신·출산(45.1%)과 '자녀양육(9.3%)의 비중이 높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은 결혼(69.1%, 68.9%)과 가족돌봄(5.0%, 9.0%)의 비중이 높음

< 기혼여성의 출생코호트별 경력단절 사유별 분포 >

(단위: %)



주: 1. 출생코호트별 경력단절 비중의 산출은 '각 사유별 경단여성 수/ 경단여성 수 × 100' 으로 산출됨. 2. 결혼 전 일자리가 있었으나 그 일자리를 그만 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전 일자리에 대한 경력단절 사유를 조사함.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 기혼여성의 연령대별 경력단절 사유별 분포 >

(단위: %)

	결혼	임신/출산	자녀양육(취학전)	자녀교육(취학)	가족돌봄(부모 등)	합계
20-29세	51.3	42.9	4.1	0.4	1.3	100.0
30-39세	43.0	45.1	9.3	1.4	1.3	100.0
40-49세	56.9	29.8	8.0	2.7	2.7	100.0
50-59세	69.1	17.9	5.7	2.3	5.0	100.0
60세이상	68.9	14.8	5.1	2.2	9.0	100.0
합계	58.5	28.4	7.2	2.1	3.8	100.0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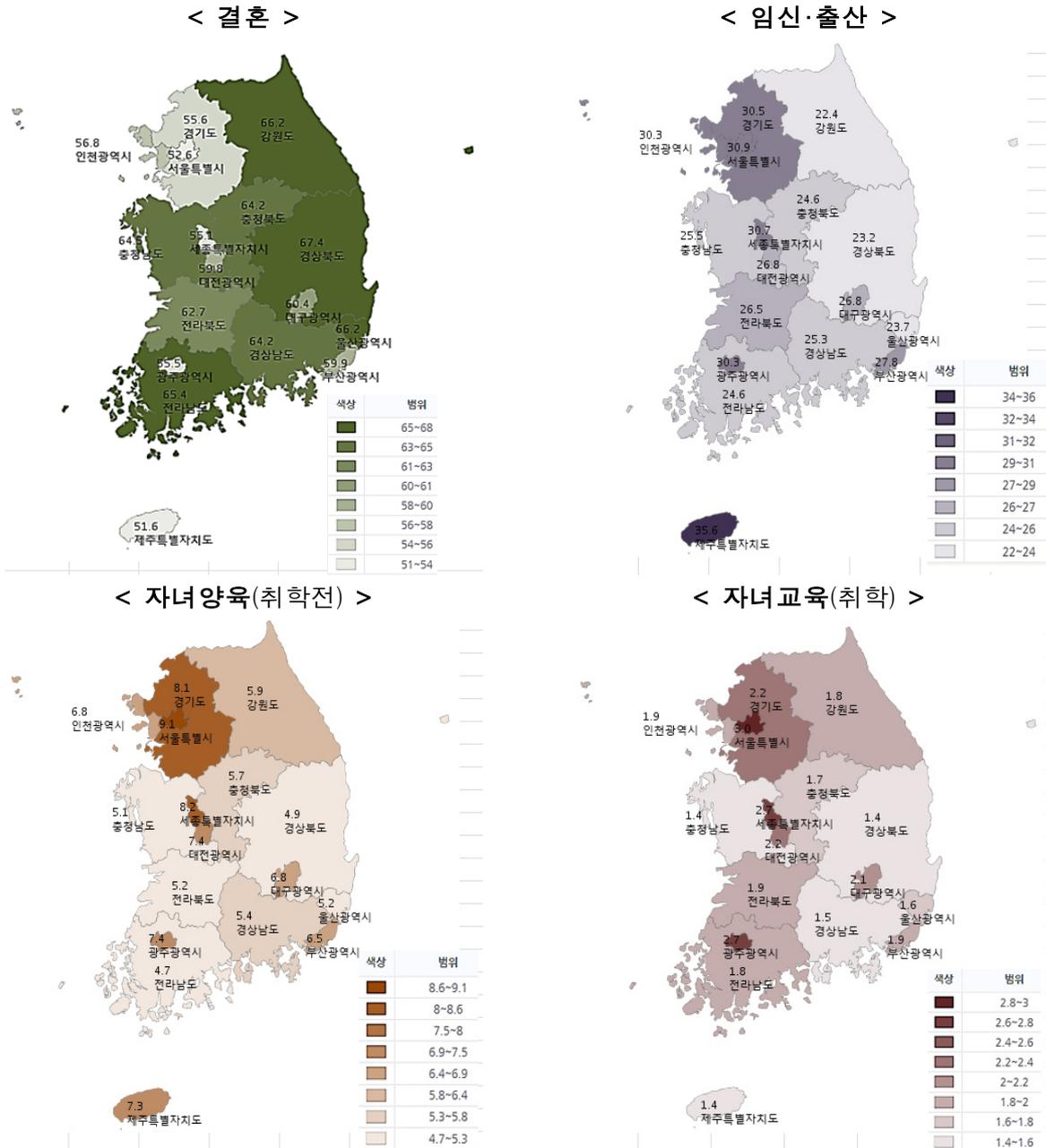
'임신·출산'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한 비중은 서울, 세종, 경기도 높음

○ (시도별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분포) 경력단절 여성 중 '결혼'으로 인해 일자리를 그만둔 비중은 경북(67.4%), 강원(66.2%)이 높은 반면, '임신·출산'으로 일자리를 그만둔 비중은 서울(30.9%), 세종(30.7%), 경기(30.5%)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자녀양육'과 '자녀교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비중은 서울과 경기, 세종에서 높음

< 시도별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별 분포 >

(단위: %)



주: 시도별 경력단절 있는 여성 중 해당 사유(결혼, 임신·출산, 자녀양육, 자녀교육)로 인한 경력단절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 참고 > 주요 용어 풀이

- 가구주 :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
- 기혼인구 : 혼인상태가 유배우, 사별, 이혼에 해당하는 인구(동거, 별거 포함)
- 출생코호트 : 동일한 시기에 출생한 집단
- 혼인코호트 : 동일한 시기에 결혼한 집단
- 초혼연령 : 두 번 이상 혼인한 경우 최초 혼인한 연령
- 출생아수 : 자신이 직접 낳은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며, 유산이나 사산은 출생아수에 포함되지 않음
- 합계출산율(TFR) : 여성 1명(15-49세 기준)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
- 기대자녀수 : 출생아수 + 추가계획자녀수
- 첫 출산간격 : 첫째 출산연령 - 혼인연령
- 출산기간 : 막내 자녀 출산 시 연령 - 첫 자녀 출산 시 연령
- 재학인구 :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인구
- 학업·일 병행인구 : 정규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취업 중인 인구